

잊혀진 소수민족 시버[Xibo, 錫伯]족의 애환

- 만주에서 중국서부 변경에 이르는 시버족의 기나긴 여정을 답사하다

남상궁*

차례

1. 만주에서 사라진 민족 시버족
2. 18세기 신강(東 투르키스탄)의 정세와 시버족의 이주
3. 현재의 시버족

1. 만주에서 사라진 민족 시버족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국가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우리 땅에도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왔든 아니든 간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고, 외국 의 남녀와 결혼하는 경우도 이제는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도 점차 다민족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서도 의식적이든 아니든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구조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웃 나라 중국은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13억 인구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하면 나머지

* 안양과학대학 외국어학부 중국어과 교수

55개 민족은 이른바 소수민족이다.

소수민족 가운데도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웬만한 국가와 맞먹는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新疆의 위그르族 그리고 광서의 壯族 등이 있고, 이들 이외에 중국 땅 밖에 당당한 국가를 형성한 민족도 조선족을 비롯하여 몽골,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크, 러시아 족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인구가 불과 몇 천 명도 안 되는 赫哲족과 같은 민족도 있다.

이 가운데 우리민족과 가장 친연성이 있는 민족을 거론하라면 당연히 몽골족과 만주족이 연상 될 것이다. 우리는 몽골로이드의 혈통을 가졌다든가 한국어는 만주 통구스 語系라는 말을 늘상 들었기 때문에 이들 민족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다.

1990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몽골족은 500만 정도로 주로 내 몽골자치주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청해, 신강, 감숙, 동북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만주족은 980만 정도 이지만 신강 위그르, 영하 회족, 광서 장족, 서장, 내 몽골 등과 같이 민족 자치주를 형성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新疆社會科學院의 苗普生 부원장은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은 滿洲族이라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만주족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 청제국의 주인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호령하던 민족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지금 신강 맨 끝의 이리와 塔城 서쪽의 카자흐스탄의 발하시 湖 와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湖를 포함한 지역, 그리고 지금의 몽골국 더 나아가 흑룡강 동쪽에서 사할린에 이르는 지역이 모두 大清제국의 영토였지요. 모두 합치면 150만km² 이상이지요.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과 청말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이를 모두 상실했어요. 언젠가는 찾아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한을 모두 합해도 22만km²이고 남한만을 놓고 보면 9만 km²인데 한반도의 7배 가까이 되는 땅을 찾아야겠다니 한족들의 욕심은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물었다 “얼마 전에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원 한사람이 한반도 북

부도 중국의 영토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찾아야 합니까?”

그러자 물끄러미 나를 보고 그는 말꼬리를 돌린다 “청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만주족이 당시의 ‘驅逐韃虜 滅滿興漢’이란 분위기에 휩싸여 대거 漢族으로 편입하고 스스로 만주어와 만주 문을 포기한 결과 지금 만주어와 만주문은 사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달리 망한지 불과 100년도 안된 민족의 언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혈통이 분명히 만주족인 사람은 1,500만 정도로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은 만주족입니다. 다만 민족 구분에서 본인이 한족인가 만주족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때 대부분이 한족을 선택할 결과 현재 같은 인구 통계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남 교수께서 2004년 여름에 가보신 차부차얼 시버족 자치현[察布查爾 錫伯族 自治縣]은 중국에서 유일한 시버족 자치현이며 아직도 만주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민족어 학교에서 시버 만주어를 가르치지요. 우리 사회과학원에도 시버 만주어의 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통커리 연구원과 그의 언니이자 사회과학원 도서관장 그리고 통커리 연구원의 남편이 그들이지요. 나는 한족이지만 그들이 시버어로 대화하는것을 들으면 마치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참 울동성이 있는 언어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2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동서 이념대립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계의 앞날은 일시에 밝아지고 인류의 미래는 평화가 보장될 것 같은 환상에 휩싸였다. 그리고 대두된 말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생소한 말이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이념 대립이 해소되면서 세계는 하나가 되고 결국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일지 모른다는 허황된 개념이었다. 위정자들은 그 기준과 그 개념을 어떻게 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 인지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이 환상에 들떠 이 말을 좌충우돌 식으로 들먹이곤 하였다.

수천년 전부터 머나먼 이역만리를 꿈꾸었던 우리들의 선조들 에게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세계화’라는 단어의 개념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아득한 곳을 여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세계화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바닷길과 실크로드를 거쳐 인도에서 경전을 구한 <往五天竺國傳>의 저자 慧超 스님, 망국의 한을 달래며 파밀 고원을 넘었을 高仙芝 장군, 실크로드나 해상실크로드를 거쳐 인도에 불법을 배우러 갔던 많은 高僧 大德 등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험한 길을 건너갔을까?

그들은 ‘세계화’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동서 문명의 교류에 어떤 형태의 것이든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세계화’란 어느 날 갑자기 특성의 인물이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개념도 연면히 이어오는 인류역사의 발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를 ‘세계화’란 환상을 향한 인류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될 과제인 것이다.

냉전 시대에 공부했던 나에게 러시아,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냉전이 사라진 뒤 이들 국가를 여행해본 결과 그곳도 역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인간의 煙火를 먹고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 역사책에선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란 것을 항상 화두에 내세워 민족의 순혈주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세계사 시간엔 미국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서양의 청교도들이 이주하여 건설한 나라로 많은 인종들이 융합하여 건설한 세계 으뜸의 문명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단 말인가? 단일민족 국가? 아니면 다민족 국가?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 하는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알타이 語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랄 알타이” 어족이란 용어에서 ‘우랄이란 말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러한 의문점은 결국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했고 더 나아가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은 어떤 형태의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했다.

특히 한반도와 연결된 만주는 항상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 한몽 수교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끊임없이 외몽골 중국의 내몽골 또는 동북지방을 여행하면서 이 지역의 민족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고 특히 만주족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나는 중국의 동북지방 大興安嶺 일대에 살던 시버[錫伯, xibo]족이란 소수민족을 만난 적이 있고, 동북지방에서 무려 5,000km 이상 떨어진 머나먼 서부변경(중국과 카자흐스탄 접경)에서 시버족을 본적이 있다. 본래 大興安嶺의 남단 현재의 길림성 일대에 거주 하던 시버 족이 무슨 이유로 머나먼 서부의 변경이자 천산북로의 종착역인 이리(伊犁)강 일대에 살게 되었을까?

시버족은 만주족의 일파로서 청나라를 세운 건주 여진족은 아니지만 만주족에 동화되었고 언어, 인종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민족이다.

시버라는 말이 유래도 그 옛날 대흥안령에서 발흥하여 북중국에 북위 왕조를 세운 “鮮卑”의 명칭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므로 이들은 유목민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구는 5만명 정도에 불과해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도 소수민족이라고 할 만큼 인구가 적다. 시버족의 서부 이주는 칭기스칸 처럼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길을 나선 것도 아니며 위에서 말한 거창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더욱 아니다. 이들의 이주는 강대국 이기주의에 따른 정치적인 이주였다.

필자는 1990년 여름 중국의 북경대 초청으로 북경대학 안의 세미나실에서 한달 동안 북경대 사학과 교수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당시는 아직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1989년의 천안문 사태 당시 그 중심에 북경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정에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천안문 광장도 공안 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오전의 세미나가 끝나면 오후에는 북경의 명소를 관광하는 것이 일과였다. 이때 처음 자금성(紫禁城)을 찾았는데 그 웅장함에 놀라며 한자로 '建淸門'이라 쓰고 만주어를 병기한 편액을 보고 책에서만 보았던 만한합벽(滿漢合璧)의 정신을 보는 듯하였다. 한달 동안의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일행은 만주를 여행했다. 심양, 연길, 장춘 등의 도시나 장백산 그리고 신빈만족(新賓滿族) 자치현등에 가서도 앞서 말한 만한합벽의 편액이나 만주 문을 접할 기회는 몇 번 있었다. 그러나 만주어를 사용하는 만주족은 볼 수가 없었다.

다른 소수민족의 경우 만주족보다 인구도 적고 문화도 변변치 않아도 그들의 문자와 함께 언어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불과 백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만주족은 大清帝國의 주인으로 현재보다 더 넓은 중국천하를 호령하던 민족인데 현재 만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번에 걸친 중국여행을 하면서도 만주어를 생활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지금까지 청조의 공식역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역사에서 새로 성립된 왕조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전왕조의 역사를 쓰는 것이었다. 흔히 '二十四史'라는 것은 역대왕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결과였다. 그러나 청조가 멸망한 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최후의 봉건왕조인 청조의 역사 '淸史'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군벌들이 외부 제국주의 세력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다가 1949년이 되어서야 중화인민 공화국이 세워졌고 그 동안은 무주공산의 혼돈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륙이 통일된 뒤에도 청사 편찬 사업은 지지부진 하였다. 그것은 만주어와 만주문을 실제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주어와 만주문을 사용할 수 있는 만주인은 정말 없는가? 정말 만주어와 만주문은 죽

어버린 말이 되었는가?

답은 ‘아니오’이다. 아직도 만주어와 만주글자를 사용하는 만주족의 후예가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시버[Xibo, 錫伯]족’이다. 그런데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만주족이 있고 시버족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만주족과 시버족이 완전히 별개의 민족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버족은 누르하치의 직계는 아니어도 분명히 만주족의 범주에 넣어도 되는 민족이다. 그렇다면 왜 만주족과 시버족을 분리 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18세기 청제국과 준가르 몽골 그리고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의 국제분쟁에 휘말린 시버족의 슬픈 역사가 숨어있다.

2. 18세기 신강(東 투르키스탄)의 정세와 시버족의 이주

17세기 동북아시아에서는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면서 세운 청조와 러시아, 티베트 그리고 서 몽골 사이에는 심각한 패권 다툼이 계속되었다.

본래 만주족은 동 몽골족과 가까이 살았고 그 만큼 친연성이 강하여 혼인, 회유, 각종의 우대 등의 정책을 통하여 이들을 만주족과 동화 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아 동부 몽골은 청조에 복속 하였으나 신강일대의 서부 몽골 세력은 여전히 청과 패권을 다투었다.

당시 서부 몽골족은 ‘오이라드’라고도 하였는데 준가르[准噶尔], 토르구드[土尔扈特], 두르부드[杜尔伯特], 호쇼트[和硕特]의 4부로 나뉘어져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이때 준가르 부에서 ‘갈단’이란 영웅이 나타나 천산 북로와 천산남로의 위그르 族 까지 평정하고 티베트를 아우르는 한편 동 몽골의 제 부족을 격파하여 칭기스칸 이래 또 한 번의 대몽골 제국을 건설

하러 하였다. 이 때문에 청조와의 대립은 불가피하게 되고 갈단은 청의 康熙帝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강희제는 중국 역사상 손꼽는 명군으로 8세에 즉위하여 중국역사상 최장의 61년을 재위했다. 이 기간 동안 ‘三藩의 亂’을 진압하고, 대만을 정복했으며, 티베트와 동부 몽골의 여러 부족까지 복속시켜 현 몽골국의 영토까지 아우르는 등 대청제국의 명실상부한 건설자이다. 두 영웅은 1696년 지금의 내몽골 우란부통에서 격돌한 이래 1696~1697년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격전을 벌렸다. 일진일퇴 끝에 1697년 믿었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갈단은 울란바타르 인근의 존모드에서 대패하고 자신은 현 알타이 산맥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강희제와 준가르 유목제국의 운명과 같은 대결은 갈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준가르 부에서는 চে왕 랍탄, 그리고 갈단 체렁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청조와 끊임없이 대결하였다. 이 문제는 雍正帝를 거쳐 乾隆帝 시대가 되어야 겨우 매듭을 짓게 된다.

청조는 비록 만주족이 세운 정복왕조로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韃虜’의 나라였으나 아이러니컬하게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으로 이어지는 130여 년의 기간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였다. 당시 청조의 서북 및 북방문제는 러시아, 서 몽골, 티베트 등 문제가 뒤섞여 아주 복잡하였다. 그런데 이때 갈단 체렁이 죽은 뒤 준가르 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호이트[輝特]부의 ‘아무르사나’라는 부족장이 청에 귀순한다. 그러자 건륭은 서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찬스가 왔다는 판단아래 준가르를 원정하여 격전 끝에 준가르 제국을 멸망시켰다.

최후의 유목제국인 준가르의 멸망 원인은 몇 가지 찾을 수 있지만, 서 투르키스탄까지 호령을 하며 청조와 수 십 년에 걸쳐 대결을 한 준가르의 멸망은 한마디로 불가사이 한 일이라 하겠다. 아무튼 청 왕조는 심복의 우환을 제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앞문의 이리를 몰아내자 뒷문에서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처럼

럼 이번에는 러시아라는 북방의 곰이 이빨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이미 강희제 시대부터 동북의 흑룡강 일대에서 청과 충돌하고 몽골이 청에 복속하면서 부터는 6,000km가 넘는 기나긴 국경선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15세기 이래 꾸준히 동방진출을 하면서 머나먼 동방의 흑룡강 일대에서 신강의 이리일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청과 대립하고 있었다.

한편 심복의 우환인 준가르 제국이 멸망하여 지금의 천산북로가 무주공산의 황무지가 되자 청조는 이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둔전을 겸한 이민수변(移民戍邊)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누구를 이민 보낼 것인가? 한족이 수적으로 가장 많고 문화수준도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청조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수렵과 목축으로 단련된 몽골족이나 다구르,오로촌 그리고 시버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동 몽골의 몽골족인 차하르 족은 누르하치에게 끝까지 반항하다가 홍타이지 시대에 겨우 복속하였고 ‘三藩의 亂’이 발생했을 때는 ‘부르나’가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에 미운털이 박힌 이들을 이주 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차하르 몽골 족의 경우 명대의 다얀 칸 이래 漢族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신중하였고 이들의 이주는 신강에서 각종의 전사가 발생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구르(達斡爾), 에벤키(鄂溫克), 오로촌(鄂倫春), 시버족의 경우 이들은 차하르 족과 달리 거의 전 부족이 대대적인 민족이동을 하게 되었다.

다구르 족이나 에벤키, 오로촌은 대 홍안령 북부 소위 다우리아 일대에서 수렵생활을 해온 민족으로 러시아의 동진으로 고향을 잃고 嫩江 일대와 대 홍안령의 남부로 이주한 인구가 희소한 소수민족이었다. 그러나

만주족에 비해 문화수준이 낮아 한족은 물론 만주족으로부터도 미개 민족으로 멸시 받아왔던 민족이었다. 즉 이들은 만주족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동북의 대 흥안령 삼림지대에서 사냥과 어로를 생업으로 하고 있던 시버족 역시 활쏘기와 기마에 능숙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발 되었다.

1593년(명 만력21년) 동 몽골의 코르친 부에 예속된 시버족은 누르하치 시절 예허(叶赫), 우라(乌喇), 호이화(辉发), 과르차(挂尔察), 주서리(珠舍里), 너은(讷殷), 하다(哈达) 등의 부족과 같이 9성 연합군을 조직하여 끝까지 누르하치에게 큰 위협을 가했던 전력의 있어 청조는 70여 년 전 그 때의 원형을 결코 잊지 않았다. 청조의 입장은 시버족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행하여 서북변경의 개척과 둔전 그리고 방위 임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소멸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어쨌든 청조의 입장에서는 밀져야 본전인 셈으로 여겼던 것이다.

본래 만주족도 활쏘기와 기마전투 능력이 뛰어나 女眞 병사 한명이 한족 병사 1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1644년 북경에 정도한 이후 농염한 중국문화에 맛을 들이면서 이들의 질박하고 강건한 기풍은 사라졌다.

일찍부터 중국을 지배한 유목민족은 그들의 우수한 전투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중국을 점령하고 한족을 지배하였으나 그 뒤로는 우수한 한족의 문화와 문명에 압도되어 유목민 특유의 강건하고 건전한 기풍을 상실하는 것이 보편적 역사적 현실이었다.

7세기 50여년에 걸친 당조의 지배를 겪은 뒤 몽골고원을 지배했던 돌궐제국을 중흥시킨 ‘켈 테간’은 말했다.

“타브가치(중국을 말함)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그리고) 부드러운 비단 천에 현혹되어 (어이!) 튀르크 보둔(백성) 너희는 많이 죽었다.”

— 켈 테간 비문에서—

이 말은 질박하고 강건한 기풍의 기마 유목민이 한족에 동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일찍이 돌궐 대제국을 부흥한 ‘궈 테간’의 빠져린 교훈을 만주족은 잊어버린 것인가? 중원을 점령한 만주족은 한문화에 동화 흡수되어 점점 그들의 질실 건강한 기풍을 상실하였다. 강화-옹정-건륭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현상은 현저하여 더 이상 만주 기인들의 용맹성에 의지하여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다.

더욱이 부패타락하고 게을러진 만주족은 숫자도 적어 이런 공백을 메울 민족으로 서북부 변경 수비를 위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시버 소론(에벤키, 다구르, 오로촌 등의 민족을 말한다) 등의 민족과 張家口 일대의 차하르족이다. 이 결과 乾隆帝의 명령에 따라 듣도 보도 못한 6,000km가 넘는 머나먼 서역변경을 향하여 거의 전부족의 이주가 시작된 것이다.

1764년(건륭29년) 음력 4월 18일(시버족은 이날을 ‘西遷節’이라 하여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청조는 60년을 변경 방위 기간으로 정하고 동북지방의 개원, 요양, 무순 등의 15개 지역에서 선발한 시버족 관병 1,000여 명과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4,000여 명을 ‘盛京(지금의 심양)’에 집결 시킨 뒤 대규모 축하행사를 했다. 처음에는 3년이 되면 교체를 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이는 물론 사탕발림의 말에 지나지 않았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고향산천을 등지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득한 서북 변경으로 향하게 된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후에 시버족은 ‘고향의 노래’, ‘길림의 노래’, ‘고향을 떠나며’등의 노래를 남겼는데 ‘고향을 떠나며(離鄉歌)’의 한 구절을 소개해 본다.

盛京將軍(당시 심양을 다스리는 군정 책임자)이 황제의 명을 받아
13개의 지역에서 우리를 선발 하였네
선발된 시버족 1,000여 가구는
伊犁(중국의 신강성 서부 변경)로 이주하리는데 이를 어찌나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붙들고 집집마다 비통한 울음을 견디지
못 하네

이제 한번 헤어지면 다시 보지 못하는데

나라에 보답 하는 것이 결코 집안의 복은 아니네

시버족보다 1년 앞서 출발한 다구르 족 등 소위 布特哈 八旗는 제 1대
가 4월 10일, 제2대는 5월3일에 각각 몽골고원을 지나 지금의 우리아수
테이(定邊左副將軍이 주재하면서 서몽골의 군정을 총괄한 곳 지금의 몽골국 흡드)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들이 몽골고원에 도달했을 때 9월의 날씨는 한 겨울로 접어들기 시
작하여 제 2대는 우리아수테이 월동을 한 뒤, 이리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의 동부신강에 있는 바르쿨로 남하하고 우룸치를 다음해 7월에야 이리
에 도착하였다. 그동안 천연두라는 치명적인 전염병과 준비 미비로 인해
다구르족을 중심으로 한 소론 族 布特哈 八旗는 엄청난 인적 피해를 겪은
것이다. 이를 거울삼아 시버족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출발한 것
이다.

‘고향을 떠나며’라는 노래가 상징하듯 시버족은 결코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다. 청조의 노획한 보복에 걸려 전제미문의 인위적인 부족
이주라는 대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시버족은 현 몽골국의 헤르렌 강 북부로 행군하는 기마대와 강의 남
부로 행군하는 우마차대의 두 부대로 편성하고 기마대를 앞세워 정찰을
하고 우마차 부대는 한 달 뒤에 출발시켜 황량하고 인적 없는 일망무제
의 초원과 사막을 행군하기 시작하였다.

다구르 족의 전철을 생각하여 시버족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
로 알려졌다. 때문에 아사자를 많이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동하면서 출
산을 하기도 하여 인구는 증가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시버
족이 행군했던 몽골고원은 이미 청나라에 완전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맹한 몽골족의 대규모 조직적인 습격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보다 7년 뒤 카스피 해의 불가 江 연안에서 자발적으로 동쪽을 향해 민족 이동을 한 토르구드 몽골족에 비한다면 다구르족을 중심으로 한 소론族 布特哈 八旗나 시버족은 청의 보호 아래 미리 준비한 식량을 먹으면서 행군을 했으니 훨씬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북부의 몽골로와 남부의 헤르렌 강변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가는 길은 초원의 길이고 이 길이 끝나면 고비사막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흔히 초원의 길이라고 하면 화면을 통해 보는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모습을 연상하지만 초원의 길은 각종 질병과 굶주린 야수,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토착민족의 습격이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아득한 지평선이 보여주는 공포감은 실제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

고비사막은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은 아니어서 키작은 관목이 띄엄 띄엄 자라고 있다. 그러나 한 낮의 뜨거운 태양열은 살갓을 태울 정도로 강렬하지만 해만지면 기온은 영하로 급강하 한다. 귀신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며 몰아치는 모래폭풍은 대지의 지형을 바꿀 정도이다. 더욱이 평균고도 4,000m 이상인 만년설의 위용을 자랑하는 알타이의 준엄한 산맥을 넘는다든 것은 바로 생사 갈림길에 선 고난의 행군이였다.

기마대는 6개월에 걸쳐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음력 9월 시버족 기마대는 ‘우리야수테이 정변좌부장군(몽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조의 총독과 같은 존재)이 진수하고 있던 우선 지금의 몽골국 훙드 지방에 도착하였다.

초원에는 8월이면 이미 겨울입구에 들어서는데, 사막과 초원의 무서운 추위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무서운 추위를 견디며 헤르렌 강 남쪽에서 겨울을 난 우마차 부대는 1년여의 행군 끝에 다음해 3월 ‘우리야수테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미 한겨울을 맞이한 ‘우리야수테이’ 지방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목은 말라죽고 가축

을 먹일 풀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오랜 행군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피폐해졌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많이 소모되어 盛京을 출발하면서 몰고 온 가축 3,300여 마리가 겨우 440두 정도로 줄어든 상태였다. 남은 가축도 태반이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말라서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하였다.

또 한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겨울을 지낸 시버족은 건륭30년(1765년) 3월, 험준한 알타이 산맥의 눈 녹은 물이 넘치는 강물과 초원을 건넜다. 그 과정에 ‘우리아수테아’에서 빌려온 가축은 대부분이 폐사하고 찾있도 전부 소모하고 말았다. 목적지 이리까지 수백 km의 험난한 길은 옛 준가르의 옛 땅으로 인적은 볼 수가 없고 도처에서 출몰하는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회족, 그리고 러시아군은 그대로 야수와 같은 약탈자의 모습이였다.

시버족의 지도자 ‘아무굴랑’은 이리장군(伊犁將軍; 신강일대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각종의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부족을 2대로 나누어 호복사이르, 예민, 바를루크, 보로타라 등을 거쳐 1765년 7월 20일을 전후하여 최종 목적지 이리에 도착하였다.

시버족은 參贊大臣 아렁아[愛隆阿] 등의 영접을 받았으나 당시 伊犁將軍 明瑞는 南疆(천산산맥 이남)을 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주둔지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당시 참찬대신 아렁아, 이르투 등이 건륭제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버족은 7월 20, 22일 두 부대로 나뉘어 이리에 도착하였는데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고 노인과 아이들은 더욱 적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모두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며 침구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지한 무기는 숫자도 적고 많이 파손되었으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선발한 남자들의 기마술과 활쏘기 등을 시험하니 숙련자가 많고 미숙련자도 조금만 훈련하면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이들을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은 준가르의 멸망으로 무주공산이었을 뿐 아니라 남강의 대소 호자의 반란을 토벌하는데 병력을 투입한 청조로선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끊임없는 침략을 막기 위해 멀리 동북의 소수민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수천 km의 장거리 민족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청조는 이리 강 북안의 惠遠城에 이리장군부(伊犁將軍府)를 설치하여 성의 동쪽 惠寧城은 만주족이 방어하고, 성의 서북은 동북지방에서 이주해 온 또 다른 소수민족 소론 다구르족이 주방둔전하고 헤닝성의 동남에는 오이라드 첩이 설치되어 서 몽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리장군 明瑞는 이리에 돌아오자마자 시버영(錫伯營)을 조직하면서 이들을 8기에 편성하고 이리 江 남쪽의 차부차얼(察布查爾) 지구에 배치하였다. 이 지역은 준가르의 옛 땅으로 소수의 다란치(북강의 몽골족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어서 농경을 모르기 때문에 천산남로의 위그린 들을 잡아와서 천산북로 즉 북강 일대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뿐 준가르 멸망이후 인적이 끊긴 지역이었다.

당시 신강 서북 변경에는 시버영(錫伯營) 이외에 차하르영(察哈爾營), 오이라드영(烏拉特營), 소론영(索倫營) 등이 설치가 되어 변방의 둔전과 주방(駐防; 영구 주둔하면서 방어에 임하는 것) 및 환방(換防; 대개 3년을 임기로 교체한다) 등의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런 제도는 신 중국이 세워지고 신강지역에 新疆生產建設兵團이란 병농일치 조직이 생기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도 했다.

이로써 시버족은 이역만리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 일대를 지키며 한편으로는 농경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시버족이 이리 강 일대에 정착하면서 청조는 일체의 원조를 중지하여 시버족은 완전히 자급자족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이주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시버족의 앞날에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후반부 천산남북로는 수많은 전란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남강 지역의 大小 호자의 난을 비롯 자항기르의 亂, 러시아의 이리 점령, 이리

술탄 汗國의 성립, 중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三區革命, 야굽 백의 남강 점령, 청군의 토벌, 공산혁명 등이 번갈아 일어나 힘없는 소수민족은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이리저리 부딪치며 격심한 시달림을 당하였다.

지금 차부차얼의 시버족 가운데는 위그르 어, 카자흐 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민족의 언어 시버어는 점차 잊혀져가며 시버 만주 문을 아는 사람은 헤아릴 정도로 숫자가 줄었다고 한다.

사회과학원의 퉁커리 연구원은 말한다.

“소수민족 시버족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위그르 등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언어를 익힐 수밖에 없었지요. 말하자면 소수민족으로서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라 하겠지요. 나도 위그르 어와 카자흐어를 할 수 있지요.”

내가 “그런데 내가 본 시버족 가운데 얼굴이 오히려 위그르 족에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시버족은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않고 타민족과도 결혼을 많이 해서 혼혈도 많이 된 상태이지요. 그것도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시다.”

이런 외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남은 시버족은 준가르 멸망 이후 황무지가 된 이리 하 일대에서 이들은 온갖 자연재해 속에 1만 5000여 개간하였다. 1802년에는 총관 투부트[圖伯特]의 지도 아래 시버족은 전체 길이 200리에 달하는 차부차얼[察布查爾] 저수지를 완성하였다. ‘차부차얼’이란 시버어로 ‘식량창고’라는 말로서 명실 공히 이 지역을 시버족의 식량창고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3. 현재의 시버족

2004년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필자는 우룸치 → 奎屯 → 克拉玛依 → 和布克赛尔蒙古族自治县 → 布尔津 → 喀那斯 → 塔城 → 博乐塔拉 → 阿拉山口 → 塞里木 호수 → 伊犁 伊宁을 거쳐 차부차얼 시버족 자치현[察布查尔 锡伯族自治县]을 찾아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일행과 함께 여행한 우룸치의 조선족 출신 김석중 선생의 안내로 차부차얼 시버족 자치현을 들어갈 때의 기분은 참 묘하였다.

우선 북경의 자금성에서 본 만주 문으로 된 간판들이 도처에 붙어있어 여기가 시버족이 사는 곳이거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평일이어서인지 마치 산속의 한적한 산사와 같이 조용한 민속풍정원(民俗 風情院)에 들어가자 시버족 아가씨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반긴다.

정문 바로 앞에 서있는 총관 투부트[圖伯特]의 비문을 읽고 당시 시버족이 겪었던 마치 동물의 생존투쟁을 연상시키는 서천의 역사를 보고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陳建新씨는 자치현에서 근무하는 30대의 청년으로 시버족이며 역시 시버족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딸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에게 만주어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 “이제 이곳도 아버지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나 일부의 지식인만 만주어를 쓰고 말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점차 사라져 가고 젊은이들도 만주어를 배우지 않고 한어만 사용합니다. 시버 만주어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이지요 길가 간판에 쓰여진 만주어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선 나 자신도 모르니까요.”하며 가만히 한숨을 쉰다.

전통적인 시버족 음식을 먹고 싶다는 나의 주장에 따라 陳建新 씨가 안내한 곳은 온갖 농작물과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농가로서 오솔길 양편

에는 滿洲 八旗가 휘날리고 있다. 때문에 ‘貝倫農家樂(貝倫이란 말은 만주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동북지방에 呼倫湖, 貝爾湖라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필자의 오버센스임이 들어났다. 신강사회과학원의 修克力 연구원은 이 말은 시버족의 전통 무악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 한다)’이란 간판이 보인다.

문 앞에 어떤 젊은이가 무언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팔기를 꾸준히 응시하며 앉아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안내받은 집안은 동북의 농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כות물을 흘리는 개구쟁이 표정의 까까머리 남자아이, 단발머리의 여자아이, 그리고 수줍은 듯이 주방에서 나오며 손을 부비는, 마음씨 너그러워 보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인의 모습과 ‘炕’이라고 하는 북방식 온돌구조와 옷을 넣어둔 상자, 그리고 색 바랜 흑백 사진 십여 장을 넣은 벽걸이 사진틀 등은 1960~1970년대의 우리 농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음식의 넉넉함은 피곤에 지친 여행객의 피로를 일거에 씻어준다고 할까?

부인은 혹시나 먼 곳에서 온 손님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을 하며 행주치마에 두 손을 부비며 연신 주방과 식탁 주위를 왔다 갔다 한다. 주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날 잡은 양을 술에 찌느라라고 웃웃이 땀에 젖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 일행을 위해 부랴부랴 잡은 양고기 요리는 북방 유목민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지만 시버족이 완전히 농경민화 한 것을 상징하는 각종 채소요리와 장아찌 등의 밑반찬은 오히려 우리들의 입맛을 되살려 준다.

우리가 기름진 육류보다 야채요리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만들었다는 전병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등은 이집 여주인의 지극정성이란 맛까지 어울려 더욱 수저를 놓지 못하게 한다.

시버족의 음식은 신강에 온 뒤에 많이 변했다고 한다. 동북에 있을 때

부터 한족, 만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돼지고기 요리가 발달되었는가 하면 신강에 와선 위그르의 영향을 받아 양고기 요리와 抓飯(위그르 어로 뽕립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양고기 볶음밥), 하사크 족의 馬腸(말창자로 만든 순대) 등이 薩薩罕, 車勒 등의 전통음식과 뒤섞여 나왔다.

식후 온갖 채소와 꽃이 만발한 정원의 오두막에 누워서 먹는 수박과 포도의 맛은 천하 일미로 신강지방이 과일의 천국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오랜만에 과수원 원두막 같은 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다. 한 여름 밤하늘에 웬 별들이 그리 많은지…….

나는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 왔고 6·25전란 때 부산으로 피난 간 것을 제외하곤 줄곧 서울에서 자랐다. 그 때문인지 남들이 구정이나 추석 때 고향을 간다고 법석을 부리는 것이 그리도 부러웠고 나도 고향이 시골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추석과 같은 명절엔 고향에 가서 이 처럼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면 했는데…….

머나먼 만리타국에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하다니…….

본래는 수렵민이었던 시버족은 만주에서부터 한족과 다른 만주족에게 농경기술을 배우고 이를 신강에 와서 더욱 발전시켜 뒤에 신강에 정주한 소수민족들에게 이를 전수하고,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유목민들을 위해 보로타라, 타르바가타이 등지의 대규모 저수지 건설방법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버족은 차부차얼[察布查爾] 일대에 정주한 뒤에도 이리지역을 둘러싸고 위그르, 몽골, 회족, 한족, 카자흐, 러시아 족이 일으킨 각종의 전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생산인력이 격감하는 비극을 겪게 된다. 1870년대 위그르의 술탄 칸이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20,000여 명의 시버족은 14,000여 명으로 격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당하는 각종 수탈로 인해 비옥한 차부차열 농지를 개간한 시버족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차부차열 病(시버족 출신 倭克力 연구원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병은 메주를 발효시키는 곰팡이의 일종이 일으키는 병이라고 한다. 신 중국이 건설되고 그 병원체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치료방법이 개발되었는데 그 이전엔 사망률이 아주 높았다고 한다)이라고 불리는 전염병까지 창궐하여 생산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였다.

또한 신해혁명을 계기로 청조가 멸망하면서 신강지역은 중앙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혼란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시버족은 각양각색의 군벌들의 수탈 속에서도 이들은 잡초와 같은 생명력으로 살아남았다.

돌이켜 보건대 16세기 이래 지금까지 오랜 기간 평화로움을 가져보지 못한 시버족은 지금에 와서야 겨우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다. 그것이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보다 수 천 배가 되는 漢族의 힘으로 소수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억누를 수 있다는 강자 중심의 평화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지금 신강지역은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이 지역은 중국 땅이라 할 수 없는 곳이고 건륭제 시절 1759년 준가르 제국을 멸망시킨 뒤에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의 ‘新疆’이라는 명칭이 붙은 곳이다.

중앙아시아는 ‘투르키스탄(투르크 인의 땅이란 뜻)’이라 불렀던 곳으로, 신강은 그 동부에 해당하여 ‘동 투르키스탄’이라 하였다. 이곳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슬람을 믿는 투르크 계의 ‘위그르(維吾爾)’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정식 행정 명칭도 위그르 족의 이름이 들어간 ‘新疆維吾爾族自治區’이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민족과 연계되어 때를 가리지 않고 독립을 부르짖는 위그르 족 분리주의 운동 때문에 중국당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사태’로 유발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중국의 신경이 보통 날카로운 것이 아니다.

이들 이슬람을 믿는 투르크계의 위그르, 카자흐 등의 소수 민족에게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우대라는 이름의 회유정책 그리고 절대적으로 앞선 경제력과 한족인구의 우위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탄압정책의 양면 정책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시버족은 투르크 계 소수민족이 아니라 240여 년 전 멀리 동북의 만주에서 강제 이주해온 퉁그스 계의 민족으로 인구면에서도 소수민족 중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머나먼 동북에서 남부여대하여 신강의 변경으로 이주한 민족은 시버족 이외에 차하르, 다구르 에베키, 오로촌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에베키족과 오로촌족은 지금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나머지 소수민족도 현재의 모습은 아주 미미한 형편이다.

청조의 중화제국주의의 세계화라는 정책에 희생된 이들 소수민족은 중국의 서북 변경에서 우리속의 동물처럼 중국정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같은 소수민족이지만 1,000만이 넘는 위그르족이 수적인 우세와 인근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계 이슬람의 영향 때문에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된다.

한족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인구와 한족으로의 동화때문에 이들에게서 민족주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가 시버족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완전히 일방적이다.

절대강자인 중국 당국의 일방적이고 거만한 베풀음 속에 명맥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족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져 버릴 것인지?

‘貝倫農家樂’이란 음식점 대문 앞에 앉아서 길 양 옆에 걸어놓은 八旗를 오랫동안 말없이 응시하던 시버족의 젊은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는 만주와 중원을 휩쓸던 옛날 팔기병의 웅혼한 기상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편 중국 서북의 변경에서 소수민족의 하나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은 아닐까?

어느덧 2006년 7월에 우룸치로 와서 벌써 4개월이 넘었다. 올해는 아

무래도 이상기온 같고 올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과학원의 구리 바야르 부처장의 말대로 그다지 춥지가 않다. 9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차가워서 바로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11월이 됐는데 아직 파리가 돌아다니다니.

나는 지금伊犁로 가고 있다. 닐키 군마 목장도 나라티 초원도 황량하겠지. 그리고 이리 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차부차얼 시버족 자치현의 ‘貝倫農家樂’의 수줍음 많은 아주머니는 아직도 있을까? 가면 지난번 같은 성찬이 나올 것인가? 아직도 그 집 문 앞에는 용맹한 만주 팔기병을 상징하는 八旗가 휘날리고 있을까?



◀ 다칭[塔城]의 다구르족 수변기념비[戍邊紀念碑] 앞에서

다구르족은 이리사건을 계기로 상당수가 이리[伊犁]를 떠나 러시아로 흘러들어 갔다. 이리사건이 종결되고 러시아가 청에 이리를 반환함에 따라 다칭[塔城]으로 돌아왔다. 다칭[塔城]의 아시르[阿西爾] 다구르족은 이들의 후예이다.